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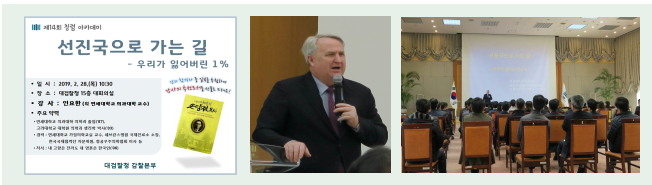


간추린 청렴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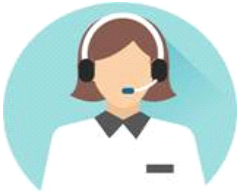
[1] 감찰본부, 제14회 청렴아카데미 실시

대검찰청에서는 2019. 2. 28.(목)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청렴을 저해하는 요소와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강사 : 現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인요한



[2] 감찰본부, '2018년 4분기 클린콜 우수직원' 선정



대검찰청 클린콜센터에서는 일선 청 클린콜 조사 대상 업무 담당자 및 전화 설문 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클린콜 우수직원 6명을 선정하여 포상하였습니다.

늘 친절할 태도로 민원인을 대한 서울남부지검 김지우 수사관 등 6명의 수상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

[3] 마산지청, '청탁금지법 유의사항'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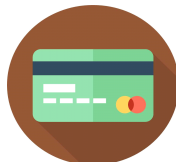
마산지청(지청장 양요안)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선물 관련 청탁 금지법 유의사항을 전직원에게 배포하여 교육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과 함께 유익한 명절을 보냈을 마산지청의 자율적인 청렴 활동 소식이었습니 다 ㄹ

[4] 부산서부지청, '정부구매카드 점검' 지속 실시

부산서부지청(지청장 김덕길)에서는 정부구매카드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적정사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부산서부지청의 지속적인 활동을 응원합니다 ^^



칭찬합니다

검찰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일선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검찰 구성원을 소개하고 칭찬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서울중앙지검

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에서 영치 업무를 담당하는 정준민 실무관은 급하게 찾아와 압수 당시 이미 부서진 핸드폰 속 파일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친절하게 응대 하였을 뿐 아니라 잘 켜지지 않는 핸드폰에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열람등사를 무사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래는 정준민 실무관에게 온 감사편지의 일부입니다.

... 이것 때문에 저녁도 거르고 밤 늦은 시간까지 해 주셨고 나머지 필요한 파일들까지 주말에도 출근하여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람등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고 감사드립니다...

... 검찰에 좋지않은 불신이 있었는데 정준민 선생님과 형사 증거과 직원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친절히 해주셔서 검찰도 이렇게 좋게 변했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감사편지 中...)

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

감성충전, 청렴 명대사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놈들이 더 부끄러운 거지"

- 영화 '동주' 中 -

따뜻하지만 묵직한 여운을 주는 영화 '동주'(2016년 개봉/ 감독 이준익) 입니다.

3월의 추천영화

동 주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시대, 동갑내기 고종사촌인 윤동주 시인(강하늘)과 독립운동가 송몽규(박정민)가 한 집에서 자라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순국하기까지의 짧은 일대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위 대사는 치욕적인 시대에 대한 저항의지를 과감히 행동으로 보이지 못하고 문학으로 표현하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반성하고 괴로워하는 윤동주에게 시인 정지용이 건넨 말입니다.

바쁜 일상 속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 번 쯤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청렴 상식이 쑥쑥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는 특이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사냥한다고 합니다.

버려진 개미집이나 나무에 작은 을 내고 멜론씨앗을 넣은 뒤 기다리면 원숭이가 다가와 안의 미끼를 한 가득 움켜쥔 채 손을 빼려고 합니다.

하지만 커져버린 주먹은 에서 빠지지 않고 당황한 원숭이는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틀며 빠져나가려 하지만 결국 사람에게 잡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딱 쥔 주먹을 조금만 펴면 도망칠 수 있지만 한 움큼 움켜쥔 탐욕을 놓지 못한 채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 이야기를 보며 어리석은 원숭이가 안타까우셨나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도 권력과 재물, 승진에 대한 욕심으로 원숭이와 비슷한 우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知足可樂(지족가락) 이요 務貪則優(무탐즉우) 나라.

만족할 줄 알면 즐거울 것이요
탐욕을 채우데 힘쓰면 근심하게 된다.

위 문장은 명심보감 안분(安分)편의 한 구절로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받아들여 만족하지 않고 분수를 알지 못한 채 내 몫이 아닌 것을 탐하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족하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맑은 정신, 건강한 가족, 편안한 집, 평범한 직장...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행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누구보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청렴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스웨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청렴 강대국이 된 근간이며 '행정의 모든 것은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 속에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 ① 정보공개 제도 ② 옴부즈맨 제도

※ 힌트 : Monthly청렴 2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 응모기간 : 2019. 3. 18.까지
★ 응모방법 :

지난 2월 정답은 ③ **어서우** 였습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



축! 이○○(부산서부), 하○○(의정부), 김○○(중앙), 문○○(서울고), 강○○(대전), 김○○(수원), 나○○(대검), 김○○(울산), 이○○(북부), 이○○(외부)

민원인의 목소리

사전 통화 후 방문 하였는데 처음부터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도 않았으면서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하며 다른날 다시 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민원인 이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잘잘못을 이야기하기보다 처리 절차나 준비서류가 생소했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민원 안내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친절하게 잘해 주고 궁금증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들어 불편함 없이 일이 잘 마무리 되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남원지청 열람등사(확정등) 담당자의 친절함에 감동을 받은 민원인의 칭찬 의견이었습니다. ♪

